

이달의 초점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4개국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독일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권영지·주보혜|

일본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최경덕|

스웨덴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신영규·남윤재|

프랑스와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스웨덴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¹⁾

Comparing Perceptions of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in Sweden and South Korea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남윤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원

이 글에서는 2024년 스웨덴과 한국에서 각각 20~49세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용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한다. 조사 결과 스웨덴 시민들은 결혼·출산 의향, 자녀 계획 수, 정책 인지도와 제도 활용 가능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 반면 한국 시민들은 결혼과 출산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에서의 미래 불확실성, 경력 단절 우려, 정부 정책의 낮은 실효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출산 지원 제도의 실질적 접근성에 대한 인식에서 두 나라 간 차이가 컸다. 육아휴직제도 활용 가능성, 정부 예산 투입 인식, 성역할 인식 및 일·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에서도 양국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는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한국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97년 이후 1.5를

넘지 못했으며, 2018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뒤 매년 하락해 2024년에는 0.75까지 낮아졌다. 이로써 한국은 매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1) 이 글은 신영규, 조성호, 변영환, 남윤재, 김우성. (2024).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5장 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한 것이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인식과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4년 한국, 스웨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에서 동일한 설문지를 활용해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스웨덴과 한국 시민의 인식을 비교·분석한다. 타 국가와의 비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결혼·출산·육아 인식의 특징을 규명하고,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개요

스웨덴에서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는 2024년 8월 스웨덴에 거주하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성인 남녀 2500명(남자 1288명, 여자 1212명)을 대상으로,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스웨덴 인구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스웨덴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남자 1291명, 여자 1209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설문조사를 하였다. 두 나라 모두에서 표본은 지역, 성, 연령

[표 1] 스웨덴 및 한국 설문조사 개요

구분	스웨덴	한국
목표 모집단	2024년도 8월 현재 스웨덴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024년도 6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조사 모집단	2024년도 8월 기준 20~49세 이하 스웨덴 거주자	2024년도 6월 기준 20~49세 이하 한국 거주자
표본 크기	2,500명 (남자 1,288명, 여자 1,212명)	2,500명 (남자 1,291명, 여자 1,209명)
표본 배분	지역·성·연령별 비례 배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4년 8월 27일~9월 9일	2024년 6월 10일~6월 20일
조사 내용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부담, 인구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등	

출처: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2.

별 비례 할당 방식을 통해 추출되었으며,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 특성, 결혼·출산·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부담에 대한 인식, 인구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스웨덴과 한국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3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현재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향후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표 3>은 이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 준다. 조사 결과에

[표 2]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스웨덴		구분		한국	
성별	남자	1,288	51.5%	성별	남자	1,291	51.6%
	여자	1,212	48.5%		여자	1,209	48.4%
연령	20~24세	326	13.0%	연령	20~24세	236	9.4%
	25~29세	437	17.5%		25~29세	508	20.3%
	30~34세	535	21.4%		30~34세	403	16.1%
	35~39세	395	15.8%		35~39세	401	16.0%
	40~44세	441	17.6%		40~44세	570	22.8%
	45~49세	366	14.6%		45~49세	382	15.3%
거주 지역	대도시	882	35.3%	거주 지역	대도시	1,352	54.1%
	대도시의 외각	480	19.2%		대도시의 외각	255	10.2%
	중소도시	810	32.4%		중소도시	748	29.9%
	농어촌	328	13.1%		농어촌	145	5.8%
교육 수준	ISCED 1 or 2	183	7.3%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03	12.1%
	ISCED 3	1,151	46.0%		대졸	1,964	78.6%
	ISCED 4 or 5	520	20.8%		대학원 이상	233	9.3%
	ISCED 6	433	17.3%				
	ISCED 7 or 8	213	8.5%				
혼인 상태	미혼	777	31.1%	혼인 상태	미혼	1,027	41.1%
	동거·사실혼	889	35.6%		동거·사실혼	313	12.5%
	법률혼	616	24.6%		법률혼	1,117	44.7%
	이혼·별거·사별	218	8.7%		이혼·별거·사별	43	1.7%
자녀 여부	자녀 있음	1,276	51.0%	자녀 여부	자녀 있음	907	36.3%
	자녀 없음	1,224	49.0%		자녀 없음	1,593	63.7%
취업 여부	취업	1,940	77.6%	취업 여부	취업	1,920	76.8%
	비취업	560	22.4%		비취업	580	23.2%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전체
스웨덴	50.2	19.6	6.5	23.7	100.0 (1,884)
한국	52.9	24.2	5.4	17.6	100.0 (1,383)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3.

[표 4] 향후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전체
스웨덴	43.2	39.6	3.0	14.3	100.0 (2,500)
한국	31.2	47.3	5.9	15.6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였으며,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9.6%였다. 한국에서는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2.9%, 없다는 응답이 24.2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교할 때 스웨덴의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7%포인트, '의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4.6%포인트 더 낮았다. 한편 스웨덴 응답자 중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7%로, 한국보다 약 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4〉는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 준다. 앞으로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웨덴 응답자 가운데 43.2%가 그렇다고 답했다.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 비율

은 39.6%였다. 한국의 경우 자녀를 낳겠다는 응답 비율은 31.2%였고, 낳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47.3%였다. 스웨덴의 자녀 출산 의향 비율은 한국보다 12.0%포인트 높고,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한국보다 7.7%포인트 낮았다. 결과적으로 스웨덴 시민들이 한국 시민들보다 자녀 출산 의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낳는다면 몇 명을 갖고자 하는지를 물었다. 〈표 5〉는 이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 준다. 스웨덴 조사 대상자는 평균 2.35명의 자녀를, 한국 조사 대상자는 평균 1.74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한국 시민보

[표 5] 계획 자녀 수 및 이상적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계획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스웨덴	2.35	(1,079)	2.25	(2,500)
한국	1.74	(780)	1.58	(2,500)

주: 1)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2) 계획 자녀 수는 향후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이상적 자녀 수는 모든 응답자의 응답을 포함함.
출처: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13-121.

다 스웨덴 시민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자녀를 갖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에 대해서도 두 국가 간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국의 경우 적정 자녀 수는 평균 1.58명이었으며, 스웨덴은 평균 2.25명이었다. 이는 스웨덴 시민들이 한국 시민들보다 평균적으로 0.67명의 자녀를 더 낳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와 비교해 보면 두 국가 모두에서 적정 자녀 수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을 비교한 결과 스웨덴의 경우 가족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본인의 건강(87.8%), 배우자의 건강(87.3%), 주거 여건(84.5%) 순으로 나타났다(‘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의 합계 기준). 경력 단절의 가능성(48.6%), 미래에 대한 불안·염려·불확실성(54.6%), 정부의 충분한 지원(61.9%)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한국 응답자들은 설문에 제시된 모든 고려

사항에 대해 스웨덴 응답자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염려·불확실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은 한국이 86.6%, 스웨덴이 54.6%로, 양국 간 차이는 32.0%포인트에 달했다. 또한 ‘경력 단절의 가능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72.2%, 스웨덴이 48.6%로 23.6%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며, ‘정부의 충분한 지원’ 항목에서는 각각 84.5%와 61.9%로, 22.6%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계획을 수립할 때 스웨덴 시민들은 개인의 건강이나 주거 환경과 같은 기본적인 구체적인 조건을 더 중시하는 반면 한국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과 정책적 지원 여부 등 구조적 요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스웨덴에서는 불확실성이나 정부 지원과 같은 외부 요인이 가족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인식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해당 요인들이 실질적인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6] 가족(자녀 출산)계획 시 고려 요인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가정의 경제적 여건	스웨덴	2.9	2.8	12.1	45.6	36.6	100.0 (2,500)
	한국	0.1	0.6	5.0	31.8	62.5	100.0 (2,500)
본인의 건강	스웨덴	1.1	2.0	9.2	43.4	44.4	100.0 (2,500)
	한국	0.0	0.2	4.5	35.8	59.5	100.0 (2,500)
배우자의 건강	스웨덴	1.3	2.1	9.2	40.2	47.1	100.0 (2,500)
	한국	0.0	0.2	4.4	35.0	60.4	100.0 (2,500)
본인의 취업 상태	스웨덴	1.9	3.5	17.0	42.9	34.7	100.0 (2,500)
	한국	0.2	1.4	11.0	35.9	51.6	100.0 (2,500)
배우자의 취업 상태	스웨덴	2.1	3.9	19.3	42.6	32.1	100.0 (2,500)
	한국	0.7	2.7	16.1	32.6	47.8	100.0 (2,500)
주거 여건	스웨덴	1.2	2.6	11.8	45.3	39.2	100.0 (2,500)
	한국	0.1	0.3	9.2	43.8	46.6	100.0 (2,500)
일·생활 균형	스웨덴	1.2	2.5	12.6	41.6	42.1	100.0 (2,500)
	한국	0.0	0.9	9.4	42.7	46.9	100.0 (2,500)
경력 단절의 가능성	스웨덴	4.3	10.6	36.6	32.6	16.0	100.0 (2,500)
	한국	0.7	3.7	23.3	41.8	30.4	100.0 (2,500)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스웨덴	2.3	4.1	18.8	41.9	33.0	100.0 (2,500)
	한국	0.3	1.8	14.6	45.0	38.3	100.0 (2,500)
정부의 충분한 지원	스웨덴	3.0	6.7	28.4	39.8	22.1	100.0 (2,500)
	한국	0.4	1.4	13.8	37.9	46.6	100.0 (2,500)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스웨덴	4.2	9.8	31.5	32.1	22.5	100.0 (2,500)
	한국	0.2	0.9	12.2	36.5	50.1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4.

다음으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7>에 나타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동의한 출산으로 인한 변화는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전체의 65.2%가 이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동의했으며, 그 비율

은 92.7%로 스웨덴보다 27.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의 증가는 양국 모두에서 출산으로 인한 가장 일반적인 변화로 인식되고 있지만, 해당 부담을 체감하는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응답자의 59.2%는 ‘출산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표 7] 자녀 출산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스웨덴	4.5	8.8	27.5	36.0	23.2	100.0 (2,500)
	한국	0.5	2.4	11.8	48.0	37.4	100.0 (2,500)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스웨덴	2.8	5.9	26.4	36.0	28.9	100.0 (2,500)
	한국	1.0	3.1	21.6	45.7	28.6	100.0 (2,500)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스웨덴	7.0	17.2	38.2	25.8	11.8	100.0 (2,500)
	한국	2.3	10.8	24.9	39.5	22.5	100.0 (2,500)
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스웨덴	12.2	21.7	36.4	20.9	8.8	100.0 (2,500)
	한국	4.8	15.8	28.0	37.1	14.3	100.0 (2,500)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스웨덴	5.4	10.3	39.5	32.4	12.4	100.0 (2,500)
	한국	7.6	20.8	36.8	26.8	8.0	100.0 (2,500)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스웨덴	8.0	17.4	39.6	24.1	10.9	100.0 (2,500)
	한국	3.1	8.7	35.5	39.8	12.9	100.0 (2,500)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스웨덴	3.1	5.8	26.0	40.0	25.2	100.0 (2,500)
	한국	0.3	0.6	6.4	32.8	59.9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8.

데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했으나, ‘출산 이후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그보다 높은 64.9%로 나타났다. 한편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스웨덴이 44.8%로, 한국(34.8%)보다 10.0%포인트 높았다. 이는 스웨덴의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한국보다 보편적이고 관대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웨덴 시민들이 경제적 요인 외에도 자녀로부터의 정서적·비경제적 지원을 일정 부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 성역할 인식 및 일·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

성역할과 관련하여 우선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어보았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스웨덴과 한국에서 공통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각각 69.0%와 67.6%로 가장 높았다. ‘확실히 남성’ 또는 ‘대체로 남성’이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29.8%)이 스웨덴(21.2%)보다 많았고, ‘확실히 여성’ 또는 ‘대체로

[표 8] 성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전체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스웨덴	6.1	15.1	69.0	6.3	3.4	100.0 (2,500)
	한국	6.4	23.4	67.6	1.8	0.8	100.0 (2,500)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	스웨덴	1.1	2.8	71.4	17.4	7.3	100.0 (2,500)
	한국	0.2	0.9	76.1	19.6	3.2	100.0 (2,500)
어린 자녀 양육	스웨덴	1.1	2.0	67.0	22.5	7.4	100.0 (2,500)
	한국	0.3	1.0	77.4	18.0	3.4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30-136.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스웨덴(9.7%)이 한국(2.6%)보다 높았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에 대한 성 역할 인식의 경우에도 스웨덴과 한국 조사 결과 모두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각각 71.4%와 76.1%로 가장 많았다. 일상적 가사가 남성의 역할이라는 응답('확실히 남성' 또는 '대체로 남성' 응답) 비율은 스웨덴 3.9%, 한국 1.1%로 나타나 스웨덴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일상적 가사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응답('확실히 여성' 또는 '대체로 여성' 응답)은 스웨덴 24.7%, 한국 2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국가 사이에 일상적 가사에 대한 성역할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성역할 인식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스웨덴에서의 조사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두 국가에서 공통으로 양육은 남성과 여

성 모두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한국은 그 비율이 77.4%였고, 스웨덴은 67.0%였다. 즉 어린 자녀 양육은 남녀가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 시민들 사이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이 남성의 역할이라는 응답('확실히 남성' 또는 '대체로 남성' 응답) 비율은 스웨덴과 한국이 각각 3.1%와 1.3%였다. 한편 여성의 역할이라는 응답('확실히 여성' 또는 '대체로 여성' 응답) 비율은 스웨덴 29.9%, 한국 21.4%로 집계되었다. 적어도 해당 설문조사 대상인 40대 이하 인구 집단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해 한국 시민들이 스웨덴 시민들보다 더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일하면서 동시에 가사와 양육을 해야 할 때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에 관한 문항은 함께 사는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만 응답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응답자 가운

[표 9]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전체
스웨덴	9.2	23.7	44.0	20.7	2.5	100.0 (1,505)
한국	2.5	12.3	27.6	43.5	14.1	100.0 (1,43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9.

데 23.2%가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어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44.0%는 보통이라고 했으며, 32.9%는 어렵지 않다(‘전혀 어렵지 않다’ 또는 ‘어렵지 않은 편이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과반인 57.6%가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보통이라는 의견과 어렵지 않다는 의견은 각각 27.6%와 14.8%에 그쳤다. 양국 사이의 차이는 한국 사람들보다 스웨덴 사람들이 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

최근 인구변화와 관련하여 스웨덴과 한국 시민들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네 가지 항목에 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우선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스웨덴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16.8%

에 그쳤지만, 한국에서 그 비율은 79.2%로 나타나 두 국가 사이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자국의 출산율 현상에 대해 두 나라 시민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두 번째로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항목에 대해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스웨덴 22.0%, 한국 35.8%로 나타났다. 스웨덴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시민이 출산율 감소의 영향이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된 것이다.

세 번째로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응답자 가운데 40.4%, 한국 응답자 가운데 75.6%가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답하여 두 국가 사이에 35.2%포인트라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 감소 속도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점이 양국 사이의 큰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

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스웨덴 응답자 중 26.1%, 한국 응답자 중 71.7%가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인 의견('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을 표해 45.6%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결과로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에 대한 양국 시민의 시각이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스웨덴은 출산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을 도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정부의 출산율 변화 대응에 대한 한국 시민의 만족도나 효능감이 매우 낮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 시민은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스웨덴은 '상당히 안다'와 '매우 잘 안다'의 합계가 59.8%에 달한 반면 한국은 30.7%에 그쳤다. 이는 스웨덴에서는 관련 제도가 오랜 기간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녀에 대한 수당(아동수당, 가족수당 등)'에 대한 인지에서도 양국 간 차이가 크다. 스웨덴에서는 60.5%가 해당 정책을 '상당히' 또는 '매우 잘' 안다고 응답했으나, 한국은 29.7%에 불과했

[표 10] 인구 변화 및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스웨덴	2.9	13.9	46.3	28.8	8.1	100.0 (2,500)
	한국	44.7	34.5	13.0	6.0	1.8	100.0 (2,500)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	14.0	19.7	44.4	16.3	5.7	100.0 (2,500)
	한국	10.3	20.5	33.4	23.9	11.9	100.0 (2,500)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	5.4	11.5	42.7	29.1	11.3	100.0 (2,500)
	한국	3.3	5.5	15.6	38.4	37.2	100.0 (2,500)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스웨덴	9.8	16.3	52.8	14.8	6.2	100.0 (2,500)
	한국	43.5	28.2	20.6	6.3	1.4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신영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2.

[표 11]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임신, 출산 지원(의료보험 등)	스웨덴	6.6	11.3	31.0	31.1	20.0	100.0 (2,500)
	한국	6.9	22.8	49.2	18.0	3.2	100.0 (2,500)
출산수당 또는 물품(출산장려금 등)	스웨덴	8.1	15.3	34.0	27.6	15.1	100.0 (2,500)
	한국	6.9	20.8	47.1	20.8	4.4	100.0 (2,500)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스웨덴	3.8	8.8	27.7	32.1	27.7	100.0 (2,500)
	한국	4.4	15.6	49.2	25.1	5.6	100.0 (2,500)
어린이집 지원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스웨덴	6.8	15.4	34.6	28.7	14.4	100.0 (2,500)
	한국	7.8	23.2	44.6	20.6	3.8	100.0 (2,500)
자녀에 대한 수당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스웨덴	4.2	7.9	27.5	34.8	25.7	100.0 (2,500)
	한국	7.2	20.9	42.3	24.3	5.4	100.0 (2,500)
세금을 통한 지원(세금 경감)	스웨덴	10.8	20.8	35.4	21.4	11.6	100.0 (2,500)
	한국	10.9	32.9	39.0	15.0	2.2	100.0 (2,500)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스웨덴	5.5	12.8	31.5	30.1	20.0	100.0 (2,500)
	한국	8.1	22.4	43.9	21.0	4.5	100.0 (2,500)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스웨덴	16.2	19.6	35.2	19.3	9.6	100.0 (2,500)
	한국	19.6	38.4	30.0	9.7	2.2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이와 함께 ‘출산수당 또는 물품’, ‘어린이집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등 다른 항목들도 모두 스웨덴이 한국보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조금 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컨대 ‘임신·출산 지원(의료보험 등)’ 항목에서 ‘조금 안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았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도 22.8%로 스웨덴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정책 명칭이나 존재는 들어 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용 방법까지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알은

인지’ 현상이 한국에 더 많이 퍼져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이다. 해당 항목에서 한국은 ‘거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합계 58.0%로 스웨덴(35.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 정보가 지역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정책 자체가 상대적으로 생소하거나 추상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12〉는 직장생활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표 12] 일·가정 양립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전체
여성의 육아휴직	스웨덴	14.0	23.8	22.3	13.6	8.1	18.2	100.0 (2,500)
	한국	6.0	17.1	36.3	24.8	10.2	5.6	100.0 (2,500)
남성의 육아휴직	스웨덴	9.9	22.0	28.6	15.5	6.4	17.7	100.0 (2,500)
	한국	1.9	6.6	21.2	39.2	25.4	5.8	100.0 (2,500)
유연근로제	스웨덴	6.7	16.8	30.4	18.3	10.3	17.5	100.0 (2,500)
	한국	2.7	7.8	26.1	35.8	19.5	8.1	100.0 (2,500)
출산휴가	스웨덴	17.8	26.4	21.2	14.9	7.9	11.9	100.0 (2,500)
	한국	11.1	21.0	34.8	18.8	9.4	4.9	100.0 (2,500)
가족돌봄휴가	스웨덴	7.2	16.6	29.0	18.3	9.2	19.8	100.0 (2,500)
	한국	3.4	7.5	22.0	34.5	22.6	10.0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한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은 전반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긍정적 인식이 높고, 한국은 '활용이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스웨덴은 응답자의 31.9%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불과 8.5%만이 그렇게 응답했다. 반대로 '활용이 어렵다'는 응답은 한국에서 64.6%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스웨덴(21.9%)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성 육아휴직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스웨덴은 37.8%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본 반면

한국은 23.1%에 그쳤으며, '활용이 어렵다'는 응답도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스웨덴(44.2%)이 한국(32.1%)보다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한국에서는 '중간 정도 가능'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휴가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은 스웨덴과 한국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제도로 평가되었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두 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각각 23.8%, 23.5%로 나타났다. 한국은 각각 10.9%, 10.5%에 그쳐 활용

[표 13]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전체
스웨덴	30.8	38.3	26.3	3.1	1.5	100.0 (2,500)
한국	51.7	27.6	15.3	3.2	2.2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건이 훨씬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다음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예산 확대에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가 확인되었으나, 그 강도와 우선순위 인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51.7%로 스웨덴(30.8%)보다 20.9%포인트 높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인구 문제, 특히 저출산 위기를 보다 시급하고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조금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현 수준 유지’ 응답은 스웨덴이 26.3%로 한국(15.3%)보다 높았는데, 이는 스웨덴 국민이 자국의 기존 인구정책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현재의 정책 집행 수준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다수라는 점이 드러난다. 반면 ‘예산을 줄여야 한

다’는 응답(‘조금 줄여야’ 및 ‘대폭 줄여야’ 포함)은 양국 모두에서 매우 낮은 수준(한국 5.4%, 스웨덴 4.6%)으로 나타나, 인구정책의 필요성과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스웨덴과 한국 시민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활용 가능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성역할과 가사·육아 부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등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성역할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한국과 스웨덴 모두 성평등 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양육에서는 한국 시민들이 스웨덴 시민들보다 더 평등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가사·육아의 병행에서는 한국 시민들이 스웨덴 시민들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평등한 인식 수준과 별개로,

한국 사회의 제도적·환경적 요인이 일·가정 양립을 제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스웨덴 시민은 출산과 육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정책 인지도와 제도 활용 가능성 또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정부 정책의 실효성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가족계획 및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체감도, 직장 내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 정부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양국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스웨덴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문화 개선, 인사상 불이익 우려 해소, 급여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신영규, 조성호, 변영환, 남윤재, 김우성. (2024).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연구보고서 2024-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omparing Perceptions of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in Sweden and South Korea

Shin, Young-Kyu

Nam, Yunja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article, we make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as well as acceptance of relevant policie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2024 with 2,500 Swedish adults aged 20 to 45 and the same number of Korean respondents in the same age range. For most survey items—including those on marriage and fertility intentions, desired number of children, awareness of existing policies, and perceived accessibility of available programs—responses were more positive in Sweden than in Korea.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were found to be more negative in Korea, possibly reflecting concerns about an uncertain future, fear of career interruption, and doubt abou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y measure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especially pronounced in levels of trust in population policies and perceived access to childbirth support. Disparities were also notable in perceptions of accessibility to parental leave,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population policies, gender roles, and the difficulty of balancing work, housework, and childca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aising Korea's birthrate will require not only broader public awareness and acceptance of relevant policies, but als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olicies and conditions conducive to work-family balance.